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촉구’ 학부모 연대 단체 기자회견 예고보도 (2021.12.09.)

## 12/10(금), 학부모들은 더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의 격차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유보통합학부모연대단체는 12월 10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 앞 광장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원화된 행정체제, 환경과 지원의 격차를 우려하며 0-5세 아이들의 보육·교육체제 일원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영유아기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발달·보호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교육체제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이원화 되어 있어 교사 양성, 지원, 운영 정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보육·교육체제는 옳이 아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원화된 체제를 통합하고 아이들을 위한 유·보체제를 설계하고 구상하자는 논의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줄곧 여러 이해주체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62.9%)이 필요없다는 의견(37.1%)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지경애,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어린이집 부모의 인식, 2018) 우리 부모들은 이원화된 체계로 인해 영유아단계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이 온전히 누려야 할 발달과 행복이 어른들의 욕심으로 유보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8개 시민단체는 유보통합학부모연대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미래의 대통령에게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를 구축하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유보통합의 필요성 △학부모가 요구하는 유보통합의 방향 △학부모단체의 발언 등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영유아가 행복한 보육·교육체계를 만들어갈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촉구’ 학부모 연대 단체 기자회견

□ 일 시 : 12월 10일(금) 11:00~11:30

□ 장 소 : 청와대 분수 앞 광장

□ 주 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연대 단체: 교육희망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변동예정)

□ 주요 내용

△기자회견문 낭독

-유보통합의 필요성

-학부모가 요구하는 유보통합의 방향

△학부모단체 발언

2021. 12. 9.

유보통합학부모연대단체

※ 문의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책임연구원 양신영(02-797-4044/내선번호 512)